

月日に 대하여는 同寺德輝樓懸板「兩堂重修記」에 詳論되었으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頭拱部材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 본다.

此部材가 確實히 大雄殿의 舊材라고 한다면 세가지의 의문이 있다.

其一은 現存建物과 舊部材의 大雄殿과 어떠한 관계이었겠느냐 하는 것이고

其二는 現存大雄殿의 造營經緯이고

其三은 極樂殿과 舊大雄殿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밝혀지면 現存大雄殿만이 寺內他建物과 異質적으로 多包系樣式을 갖고 있는데 대하여 解明될 것이고 極樂殿造營當時의 境內 配置物에 대한 意圖가 밝혀질 것이며 잊은 麗代의 遺例가 하나 添加되게 될 것이다.

三

長谷寺大雄殿은 高麗式의 部材와 李朝式의 部材가 混合 結構되어 있다. 餘他建物에도 舊材를 繼續 新建物에 使用한 例는 許多하다. 그러나 棋包가 變異된 別개의 것인 點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四

柱頭굽이 曲面이면서 「굽」받침이 없는 것(圖2)과 있는 것이 같은 境內에 있음은 아직까지 없던 新例이다.

以上 諸疑問을 提起한다. 이것은 아주 興味 있는 問題가 되리라 생각 한다. 이것의 해답이 얻어지면 우리나라 木造建築樣式上 밝혀지지 아니 한 몇가지 問題가 解決될 수 있는 資料가 얻어지리라 思料된다.

李朝在銘 白磁壺의 一例

李 殷 昌

最近에 忠南瑞山郡 音岩面 流溪里 大橋에 居住하는 慶州金氏家의 世傳之物로 내려오는 在銘 李朝 白磁壺를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圓筒形有蓋壺로서 現今은 그 壺蓋가 없

어지고 壺身만이 남아 있다. 現存하는 壺身은 아랫도리와

윗도리의 直徑 數值가 같은 直축한 圓筒

形의 항아리로서 앞은 굽다리가 넓직한 底面을 이루어 壺座

의 安定感을 주고 있다. 壺口는 壺身이 그대로 올라가 形成되었는데 壺

蓋에 맞도록 「턱」을 이루었다. 그 數値는 壺體의 總高가 三七·五cm

徑이 二四·四cm로 보기도 들은 形態요 또 大形에 屬하는 典雅한 圓筒 形항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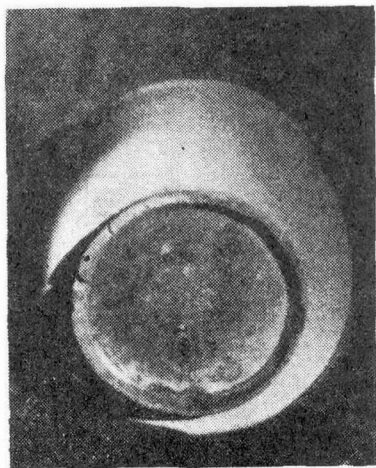
窯燒手法에 있어서는 紋樣도 없고 水裂도 보이지 않는 乳白色인 바簡古한 氣品이 形態와 잘 調和된다. 그 白磁釉調는 單調한 品格과 淸靜한 感覺을 주고 있어 마치 白衣民의 純潔한 象徵인 것과도 같다. 壺底굽다 리 圓內에 鐵砂로 쓴 銘文이 있으니 모두 三行銘인데 다음과 같이 判讀 되었다.

忠淸道 瑞山」

大橋……金漢昌」

……」

忠淸道 瑞山 大橋는 當時 忠淸道 瑞山郡 大橋洞으로 現今 忠淸南道 瑞山郡 音岩面 流溪里 大橋洞 곧 「한다리」라는 地名을 指稱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繼續한 字銘이 있으니 磨滅로 判讀치 못하겠고 다음에 金漢昌 姓名三字가 보이니 이는 圓筒形白磁壺의 主人公이며 또 다음 三行에 도 字銘이 있었던 모양이나 亦是 磨滅로 判讀치 못하게 되어 遺憾이었다. 金漢昌은 慶州人으로서 元直이며 白磁壺의 所藏者인 金昌鎬氏의 九代祖인 肅宗十二年(丙寅)에 出生하여 英祖三十二年(丁丑)에 七十二歲



로卒하였고 官職으로는 昌平, 林川, 仁川, 富平等 各邑를 歷任하고 正三品에 이르렀다. 그리고 英祖繼妃 貞純王后 金氏의 父親인 金漢者와 同一家門으로 俗稱「한다리 金氏」로 불려내려오는 地方巨族의 한사람이었다. 在銘白磁壺는 金漢昌의 官職에 오른 後의 肅宗末부터 그의 卒年인 英祖三十三年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니 곧 十八世紀 前半期의 李朝白磁의 標本의 하나로서 좋은 資料인 것이다. 釉調와 胎土의 精選된品으로 보아 廣州 分院 官窯產으로 推定되는데 銘文에 依하여 推測되는바는 特約注文品인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또 金漢昌은 仁川都護府使와 富平都護府使로 있었으니 或 그때 廣州分院에 所託하여 製品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在銘圓筒形白磁壺의 所藏者인 金昌鎬氏의 伯兄 金京鎬氏도 同一한 또하나의 圓筒形白磁壺를 所藏하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製品된 것으로 當時 여러개를 마련한 모양이다.

圓筒白磁壺가 어디 使用하던 그릇인지 그 用途가 궁금하다. 形態·銘文·窯法等으로 보아 故全釜弼氏의 所藏品으로 되어 있는 一名「드린항」이라는 圓筒白磁壺와 酷似한데 注目되며 더욱이 金昌鎬氏 藏品도 그 用途를 물어 보았더니 亦是「다래항아리」라고 함에 興味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全釜弼氏藏品은 山中木實「다래」를 담은 容器로 「考古美術」(註)誌에 紹介되었는데 金昌鎬氏藏品은 山中木實「다래」를 담은 容器가 아니라 옛날에 婦女들이 머리를 씻을 때 드리기로爲한 甕머리꼭지「다래」를 담은 容器를 뜻하고 있다. 여기 그 用途는 무엇인지 斷定을 내리기 어려우나 그 素朴한 雅趣와 純潔한 美를 자아내는 尼具의 하나로 믿어진다.

(註) 第一卷第三號「드린항」參照(全釜弼氏)

古藍의 翎毛佳作

崔 淳 雨

古藍 田琦의 作品은 그 遺例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있다해도 그의

會心の 快作을 보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이번 우연히 R氏가 所藏하는 傳古藍 筆翎毛佳品 한폭을 볼機會가 생겨서 뜻밖에 그의 佳作에 眼福을 누리게 된 것이다.

唐紙에 水墨으로 豪放하게 그려내뜨린 小品이었지만 그 筆勢의 闊達함이라던지 構圖의 圓熟함과 水墨의 自由로운 驅使가 筆法이 매우 雅妙해서 無一點俗氣한품이 可히 古藍이라고 할만해서 愉悅을 不禁한 것이다.

山비둘기랄까 까치랄까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落葉된 枯木 가지앞에 한쪽 날개를 접두시시 펼치고 한참이 사냥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버티고 선 두발의 안정된 姿勢라던지 나래에 꼬아박은 새머리의 動作이라던지 簡朴한 筆致이지만 迫眞하는 表現을 보였고 먹으로 메꾸어 남긴 紙本의 흰素地로 表現한 주둥이의 솜씨도 매우 格調가 높다고 할만하다. 더구나 濃淡으로 段層지어서 두발 밑에 나래로 칠한 淡墨調는 非凡한 作家의 멋진 造形이라 하겠고 渴筆로 之字形으로 一筆揮之한 枯木가지의 筆勢와 두어번 특특 환쳐버린 새꼬리의 表現도 可히 즐길만하다. 이러

